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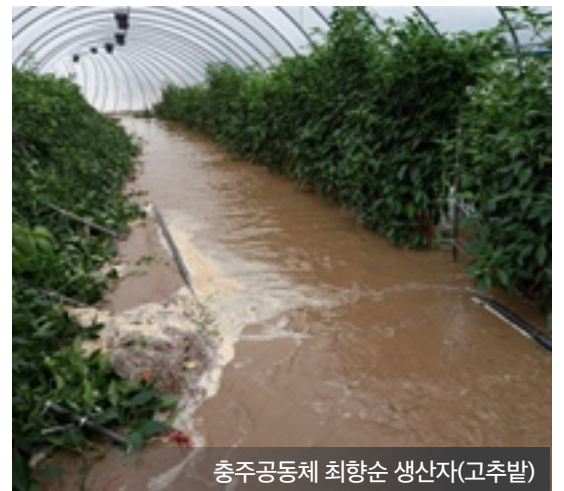
남원 춘향골공동체 김갑식 생산자(하우스)



원주공동체 장석원 생산자(들깨밭)



단양 별방공동체 유영수 생산자(메주콩밭)



충주공동체 최향순 생산자(고추밭)

이번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 기후위기 기후위기 시대 농사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50일 넘게 많은 비가 내린 올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었고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높은 지역은 지반이 무너져 산사태의 위협을 받았고, 낮은 지역은 범람한 강물로 침수되고, 제방이 붕괴되었으며, 농촌 지역은 토양과 농경지 하우스가 침수되고, 과수나무가 유실되어 출하자체가 불가능한 피해상황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10년 만의 폭염, 2019년도에는 역대 최다의 태풍, 2020년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팬데믹 현상 등은 기상이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온도는 1880~2012년 동안 0.85℃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12~2017년 동안 약 1.8℃ 상승한 것으로 2배 이상 기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폭염, 가뭄, 홍수, 태풍, 질병과 같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상기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 따르면 기상이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해야 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Net Zero)를 달성해야 합니다. 생존의 절박함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은 절박함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5면으로 이어집니다.)

공동체 자가제조 퇴비를 만들기 위한 법령 정보 및 제도를 소개합니다

지난 5월, 6월, 7월호에 공동체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 사례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각 공동체에서 퇴비를 만들 때 필요한 법령정보 및 제도를 소개합니다.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제도

“지역복합순환농업의 시작! 축산농가와 협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이 가능하다”

-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및 ‘퇴비 액비화 기준 중 부속도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미흡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가까운 축산농가와 협업을 하여, 가축분 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비 부속도 기준 미달 퇴비를 농경지에 퇴비 살포 시 위반 사안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규제라고 볼 수 있지만, 퇴비부속도 관리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잘 부속 된 퇴비는 토양에 미생물 및 유기물 공급으로 지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 주위에 한살림 축산농가가(한우, 육계, 산란계) 있으면 더욱 좋은 퇴구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 퇴비화 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 2 관련 별표 3)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별로 부속 중 기(1,500㎡미만), 부속 후기 이상(1,500㎡이상)을 지켜야 합니다.

1. 축사가 있는 경우

- 의성 쌍호공동체는 농가별로 5~10두 정도의 한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퇴비를 만들어 사용한다.
- 의성 쌍호공동체는 한우 톱밥 깔짚 우사를 적용하고 있고, 사육 규모도 부속도 검사 의무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퇴비를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다.
-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 적용 제외 대상
 - 신고규모(소 100㎡ : 약 한우 10두, 돼지 50㎡ : 약 63두 등) 미만 농가, 공동자원화시설 등 전량 위탁처리 농가는 부속도 적용 제외됨
 - 검사 제외 대상 축산농가가 경작농가(축산농가의 자가 경작 포함)에 퇴비를 제공하면 퇴비 액비화 기준(법 제13조의 2)의 행정처분 면제됨

2. 축사가 없는 경우

1) 이동형 간이퇴비장(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신고, 허가 필요 없음)에 외부 축분을 가져올 수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 액비의 제공) : 경작(耕作) 농가에게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 자체 발효가 가능함
- 부속도 검사가 완비된 축분은 공급 가능



이동형 간이 퇴비장

2) 마을형 공동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농지에 설치 가능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축사 및 그 시설과 연결한 부속 시설(분뇨처리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자유롭게 농지에 설치 가능 하지만 축사 부속시설은 연접부지에 설치 가능하나 이격 부지에서는 설치 불가하여 퇴비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퇴비 부속도 제도 시행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 지침서의 개선 사항으로는 마을형 공동 퇴비사, 퇴비사는 <가축분뇨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연접부지는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고, 이격 부지에 설치 시 농지 전용이 필요함
- 따라서, 마을형 공동퇴비사, 퇴비사는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전용 허가를 거쳐 설치 가능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은 100% 감면 가능함

3) 자가 퇴비를 만들기 위해 외부 계분을 사용하는 경우

- 한살림퇴비 기준은 공통으로 아래처럼 변경예정임
- 퇴비·축분 사용기준 변경(안) / 2020년 한살림 자주기준서 25p 참고

농산7 자재의 관리

농산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 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무항생제 축산농장으로부터 유래한 축분 허용 -경종과 축산이 결합된(순환이 전제된) 개별 생산자(생산자 본인) 축산으로부터 유래한 축분 허용. -지역순환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는 한살림 공동체 간 또는 지역(시, 군) 근거리에 위치한 개별 축산농가의 축분은 충분히 발효 후 사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된 유기자재는 사용 가능 	필수
--------	---	----

농산7 자재의 관리

농산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인증 축산농가 및 본인의 축분이 아닌 경우에는 중금속, 항생제 검사 필수, 계분의 경우 잔류농약검사 추가 -출처가 불분명한 축분을 수집하여 제조 판매되는 퇴비는 사용금지. -부속 된 퇴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속도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부속이 덜된 퇴비는 추가적인 부속 기간을 갖고 완속 후 사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증 취득한 경우 모든 사항은 인증기관의 인증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필수
--------	--	----

- 따라서 외부 계분(무항생제 계분 이외)을 자가제조 퇴비에 사용하려면, 항생제,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이 필요함.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4.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 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 나. 배출시설의 바닥 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 다. 닭 또는 오리를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의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퇴비 침출수 관리

- 퇴비사가 없는 경우 퇴비를 외부 환경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외부 민원이 없는 곳, 외진 곳에서는 부속 된 퇴비를 외부에 쌓아서 발효를 시키고, 보관 시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침출수가 없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료관리법>

제19조의 2(비료의 관리의무) ① 비료 생산업자, 비료 수입업자, 비료 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축분뇨법>

부속도 기준 미달 퇴비를 농경지에 퇴비 살포 시 위반 사안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 지원의 필요성

- 충주 공동체 안혁기 생산자는 충주시에서 수피를 지원받아 자가퇴비를 만들고 있음
- 의성 청암공동체는 아래의 사업을 통해 자가퇴비 관련 지원을 받고 있음

[경상북도 의성군 친환경분야 사업신청 공고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의거 2018년도 친환경 농산분야 도비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종류

가. 친환경 자가퇴비 지원사업

1) 사업량 : 200ha

2) 사업비 : 200백만 원(군비 50%, 자부담 50%)

3) 사업내용 :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에 필요한 자재 지원 등

4)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소비자단체의 자주인증제에 따른 무제초제 농법 실천농가·단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의 자가 퇴비 활성화 사업계획

- 생산자연합회에서는 자가 퇴비를 만드는 농가는 별도의 자가 퇴비 비료성분(NPK)을 검사비용을 지불하여 시비처방서에 맞는 추가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항생제 인증 이외의 계분을 사용하여 자가 퇴비를 만드는 곳도 중금속, 항생제, 잔류농약검사 비용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퇴비를 활용하여, 땅심을 살리는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과 소비의 약속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2020년 상반기 참여인증 공동체 활동을 돌아보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한살림 참여인증 1차, 2차 심의가 6월 1일과 29일에 열렸다. 2018년과 2019년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공동체와 과실류 자주인증에서 전환하는 공동체, 신규 공동체 등 31개로 전체 120개 공동체의 25%에 달하는 숫자이다.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지에서 공동체의 자주적인 생산관리와 필지 점검이 실행되면 자주점검과 인증심의회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는 한살림 생산지에서도 민감한 문제였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체의 자주적 생산관리가 완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필지점검을 연기하였다. 출하 영역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산지의 물품이 안성물류센터에 입고, 집품 후에 각 지역으로 공급되는 통합 물류 방식이라 생산자와 공동체는 한살림 방역지침을 지키며 생산과 출하를 진행하였다.

참여인증을 신청한 공동체 중에서 상반기에 인증 갱신과 자주인증 과수 출하가 예정되어 있는 공동체는 필지점검과 인증 심의를 연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부득이하게 공동체 필지점검 참여 인원을 축소하거나 필지를 나누어 시행하였다. 개별 과수농가는 출하에 지장이 없도록 인증 준비와 필지점검에 사업연합 참여인증팀이 산지를 직접 지원하였다.

한살림 참여인증이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원에게 참여인증을 홍보하고 성과를 모아내기 위해 2019년에 참여인증 승인을 받은 공동체의 일부 품목과 자주인증 과실류는 참여인증 표기 마크를 부착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 또한 참여인증 물품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한살림 소식지 기고(6월), 참여인증 리플릿 배포, 홍보 포스터, 온라인 홍보(유튜브)를 진행하였다.

인증라벨 표기 방법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한살림의 독자적인 인증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국가인증을 취득하여 물품을 출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인증과 참여인증을 병행하여 표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국가 무농약인증과 한살림 참여인증 3단계(유기재배 기준)를 동시에 표기할 경우,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체가 친환경 농산물의 무농약 또는 유기 농산물과 같은 의미로 인식할 수 있고, 소비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로 판단되므로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한다는 품관원의 입장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는 무농약인증과 참여인증 3단계를 병행 표기하면서, 유기재배로 관리하는 한살림의 차별적인 요소를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인증을 생산과 소비의 협동과 연대 활동으로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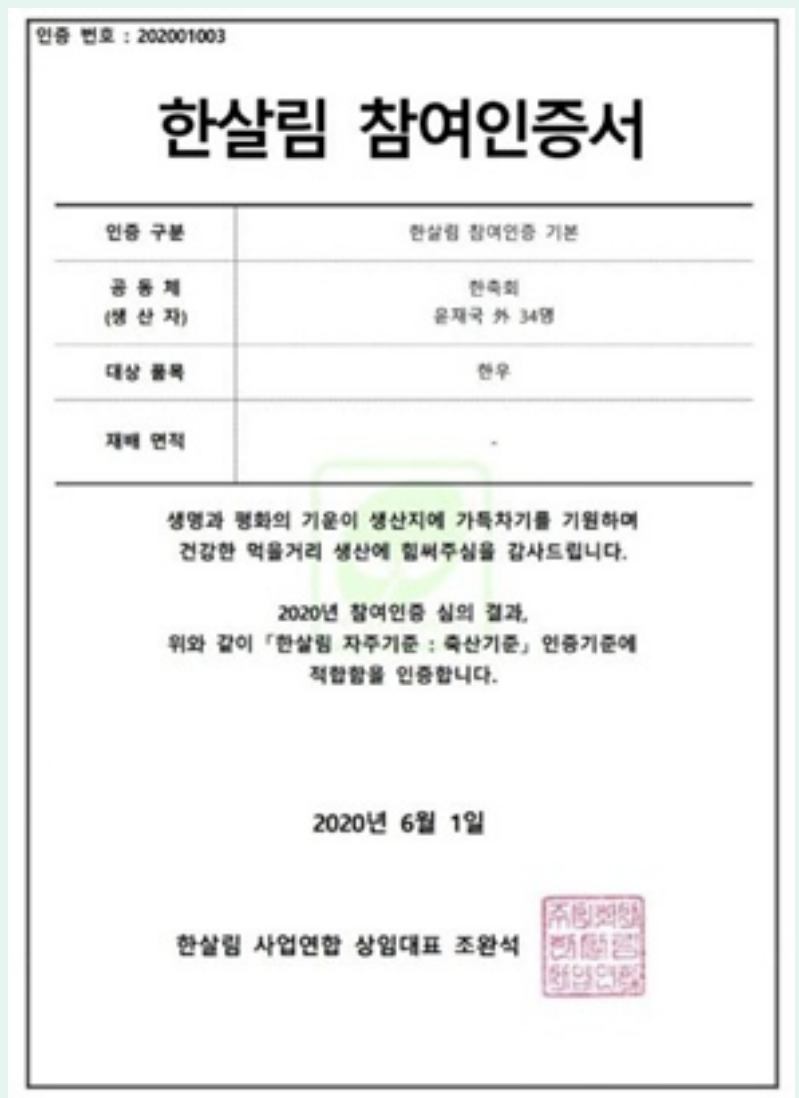
인증 표기 라벨에는 참여인증을 받은 공동체명을 추가하고, 공동체 소개와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와 연결하는 QR코드를 추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참여인증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20년 한살림서울 김보영 농산물위원장을 심의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인증 심의를 요청한 공동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산별공동체는 인증 승인, 옥천생산자모임과 한축회는 조건부 승인으로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승인 공동체의 사후 관리 내용을 보고 받았다. 한축회의 경우, 사료첨가제 전수 조사 및 표본 농가 생산자 위험요소 관리 방안을 제출하였다. 화상병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

공동체 과수 자주점검은 순연하기로 하고, 출하 전 심의는 공동체 자주관리 진행 사항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원주공동체, 영동생산자모임, 두미반곡공동체, 의성 청암공동체 자두와 복숭아, 세종 고송공동체 배와 복숭아, 개별 생산자 과수류 인증을 승인하였다. 세종 고송공동체의 경우, 공동체의 생산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승인을 유보하고, 개선 계획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6월 말 기준으로 참여인증 심의 후 승인을 받은 공동체는 8개 공동체이다. 7월에 괴산 느티나무공동체, 홍천 주음치공동체, 영천 햇빛공동체, 의성 청암공동체(사과, 대추), 거창 산하늘공동체, 상주 햇살아래공동체가 예정되어 있다. 2020년에 신청한 공동체가 참여인증 과정에 잘 적응하여 인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무국과 사무처의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신규 공동체의 경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여인증 교육이 필히 진행되어야 한다.

하반기에는 과정중심의 인증이라는 형식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보다는, 생산조직이 소비자와의 약속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자주적인 생산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활동의 결과로써 참여인증이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자연합회는 참여인증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참여인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한살림 참여인증서

집중호우로 인한 한살림생산지 피해현황과 대응방안

54일에 걸친 기록적인 장마와 전국에 걸친 집중 폭우,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한살림 생산지의 피해가 크다. 올 초 냉해를 이겨내고 알차게 익어가던 과실들이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고추 시설하우스 산사태 피해

충북북부연합회 충주공동체 엄정면과 소태면 지역은 전 지역에 걸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폭우를 버티지 못한 산에는 새로운 골짜기가 곳곳에 만들어졌다. 산에서 굴러온 돌덩이와 토사가 복숭아와 사과 필지를 뒤덮었다. 족히 200미터가 넘게 밤나무 필지를 뚫고 밀려 내려온 돌덩어리가 생산자의 작업장과 농기계를 한꺼번에 쓸어버렸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농장에 자원봉사 일손이 그나마 힘이 되었다. 평소 마을을 고즈넉이 지키던 뒷산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주택과 텃밭, 시설하우스를 쓸어버렸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필지와 논이 토사에 묻히거나 침수되어 생육 상황을 예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천 지역의 경우에 당근, 생강, 고추 필지가 침수되어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양 지역은 계속되는 장마로 메주콩, 수수 등의 잡곡 생육이 부진하여 작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일채소 침수 피해

청주연합회 미호천 지역은 장마 초기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일일채소 시설하우스 30여 동에 물이 들어와 어린일일채소를 비롯한 작물이 고사되어 생산이 중단되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작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고사하면서 서서히 생명력을 잃는다. 가슴 졸이던 농부의 마음이 허망하게 무너진다. 밀려든 모래와 흙도 문제다. 땅이 마르기 전에는 밭 작업을 할 수 없다. 하우스 바닥에 쌓인 흙이 마르고 작물 잔사를 제거하고 밭 만들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가을 작기 양채류와 김장용 채소의 정식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너무 늦어 작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작물도 있다.



영동 캠벨포도 침수 피해

충북남부권역 영동생산자모임 생산자 2명의 캠벨포도 2,300평 필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천에서 멀찍이 떨어진 밭이지만 용담댐 방류로 수확을 앞두고 있던 포도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한 송이의 포도 수확도 아예 불가능하다. 큰 충격을 받은 포도나무가 고사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농사를 지켜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옥천공동체 둥근애호박 재배하우스도 침수피해를 입었다. 밭을 정리하고 모종을 다시 키워 정식하는 일이 무더운 하절기에 만만치 않은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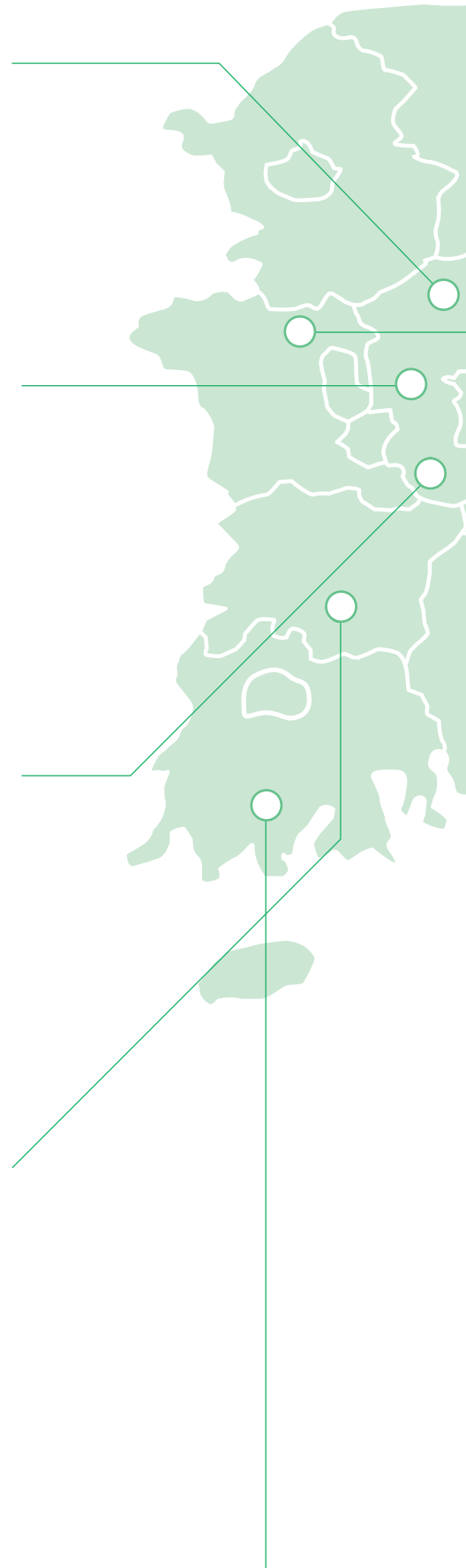
무주 사과나무 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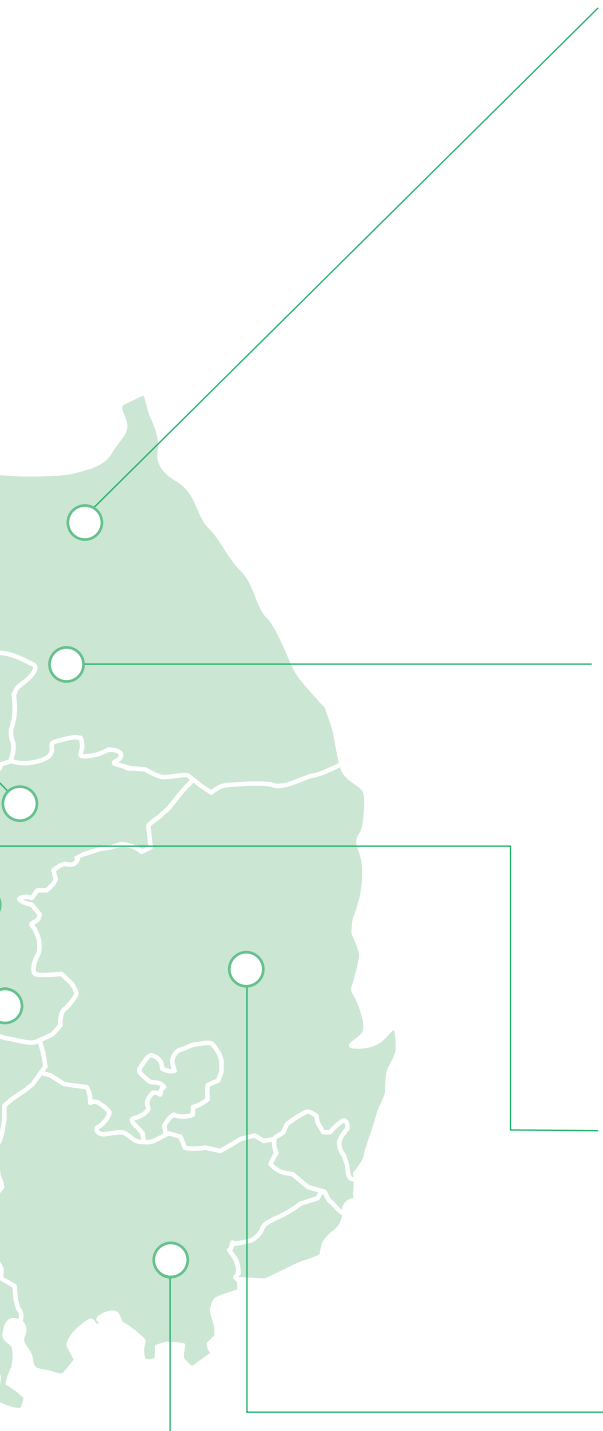
전북연합회 군산 우리공동체는 긴 장마와 잦은 침수, 그로 인한 병충해로 인해 고추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섬진강 제방 붕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남원 춘향골공동체에서는 딸기 하우스 1,200평과 겨울감자 재배용 비닐하우스 6,000평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회원 2가구의 주택이 침수되어, 그 중 한 가구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집기류와 가구를 다시 장만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읍 한밤은공동체의 생강,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의 늪은 호박 필지가 다수 침수 피해를 입어 작물의 상태를 예찰하며 생육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벼 침수 피해

전남연합회 12개 공동체 중에서 곡성 섬진강, 담양 대숲, 영광 이음, 장성 백양공동체가 장마와 폭우 피해를 많이 입었다. 특히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공동체는 댐이 범람하면서 엄청난 일을 겪었다. 곡성 섬진강공동체 이옥신대표의 축분퇴비 제조공장과 시설, 주택, 작물까지 모두 침수되었다. 장성 백양공동체와 영광 이음공동체에서 2명의 회원 주택이 완전히 흙탕물에 잠겨 리모델링을 하고 가재도구를 장만해야 하는 처지이다. 담양 대숲공동체와 장성 백양공동체의 감나무 필지가 붕괴되거나 나무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이외에도 함평 천지공동체 늪은 호박과 벼 침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파 도복 피해

홍천연합회

장마로 인해 도복된 중파가 S자로 휘어지는 현상이 다수 농가에서 발생하여 사업연합과 협의하여 공급방식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인제 지역에서는 미약정 물량이지만 한살림 회원들의 재배하던 잡곡과 고추가 침수, 도복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구공동체의 늦감자는 전년 대비 50% 정도로 작황을 보이고 있으나 회원들의 재배면적이 많아 약정량 생산,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완숙토마토의 생산과 출하가 원활하여 약정량 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침수 피해를 입은 후에 추가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외에도 당근 뿌리가 썩어 생산량이 떨어지고 양배추와 적양배추의 작황이 부진하다. 김장배추 정식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원주공동체 들깨 침수 피해

강원연합회

백옥포공동체에서 가을 작기로 재배 중이던 브로콜리, 피망, 양배추가 침수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주공동체에서는 애써 키운 참깨가 물에 완전히 잠겨 수확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청년생산자가 공을 들여 정식해 놓은 들깨가 침수피해를 입어 모두 고사하였다. 모종을 키워 재정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막막한 상황이다.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

아산연합회

시설재배 하우스 침수로 인해 깻잎과 부추, 오이 등의 작물 출하가 중단되었다. 주택 2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도 발생하였다. 다수 회원의 논둑이 무너지고 토사가 유입되어 벼가 매몰되거나 쓸려 수확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너진 둑을 복구하거나 토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수확이 끝난 후에 진행해야 한다.



산사태로 인한 과수 피해

경남연합회

산사태로 인해 필지가 유실되거나 방조망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아오리사과 낙과

경북연합회

아오리사과와 견고추 피해가 큰 편이다. 아오리사과는 낙과율이 50%에 달할 정도이고, 견고추는 잦은 비로 인해 탄저병 등 병충해가 심해 작황이 저조하다. 다행히 재배 면적이 많아 약정량 80~9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기후로 인해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해로 생산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한살림만이 아니라 전국적이면서 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한 생산자들의 답은 간단하다.

“한살림 운동 열심히 하면 돼! 그게 기후 살리고, 지구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이야. 그게 답이야.”

- 지난 8월 달 이사회에서는 전국사무처와 지역사무국이 함께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회장단과 소통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집중호우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생산안전기금과 긴급위로금 형태로 나누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한살림연합과 지역한살림에서는 생산지 폭우 피해 지원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 한살림 매장(모금함), 온라인(기부결제), 계좌입금(한살림재단)으로 모금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우리 모두의 농사, 함께 힘을 모아요

생산지 폭우 피해 지원 모금

모금기간: 8월 19일 ~ 9월 30일

이웃을 돕고, 자신을 지키는 모금입니다. 한살림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금입니다. 모금금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모금금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모금금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2020년 7차(8월)이사회 회의

8월 15일(토) 과산유기농테마파크 교육장에서 진행하였으며, 29명 참석으로 7차 이사회 회의를 진행함.

[주요 활동 보고 내용]

7월 31일 현재, 회원이 2,225 가구임.

주요회의 및 업무보고

8월 사무국장단 및 회장단 회의 결과를 보고함.

위원회 보고

- 3차 정책위원회 회의, 1차 전국청년위원회 대표자 회의, 전국여성위원회 대표자 여름 연수 진행 결과를 보고함.

각 부문 별 보고

- 총무회계부에서 7월 결산내역을 보고함.
- 생산지원부에서 생사협업실무회의, 사과워크숍 및 출하 전 회의, 긴급 매실 간담회, 밀/보리/귀리 생산 관련 회의, 견고추작목모임 운영회의 내용을 보고함.
- 정책기획부에서 2차 공동체활동안내서 제작 TFT 회의, 경북연합회 사무국 연수 지원, 인농 선생 10주기 묘소 참배 행사, 유기농마케팅센터 현황을 보고함.
- 교육홍보부에서 사무국장단 역량강화 교육(7회 차), 도농교류 권역별 회의, 청년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계획, 전남연합회 심화교육 연기, 소식지 30호 발행 결과를 보고함.

한살림연합 / 사업연합 주요보고

- 한살림사업연합에서 전략수립프로젝트에서 혁신실무팀 구성, 리드타임 단축 평가 핵심내용, 외부유통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에 한살림서울이 선정되었음을 보고함.
- 한살림연합은 농어업농어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국가 푸드플랜 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타운홀 미팅 형태로 의견 수렴을 계획하고 있어 한살림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한살림연합 이사회 및 실무책임자 합동연수 계획을 보고함.
- 한살림사업연합은 물품 안전성 사고 미보고 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약정과 연동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 상반기 공급고가 전년대비 19.7% 성장, 서울시 임산부 꾸러미 시범사업 진행 내용, 온라인 주문 활성화 계획 등을 보고함.

기타 주요 보고

보고 1: 제주도연합회 김영준 생산자 복권 승인 보고

- 김영준 생산자는 2014년 9월에 함께 모종을 키우던 이웃 농가의 농약살포에 의해 양배추 모종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2014년 12월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함. 제명된 이후에도 친환경 영농을 실천해왔으며 공동체 활동에도

- 열심히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제주도연합회에서 복권을 요청한 사안임.
- 제주도연합회에서 지난 7월에 『상벌규정 제11조①항』에 근거하여 김영준 생산자에 대한 복권 요청을 제안하여, 상벌위원회에서 복권하기로 결정함.

※ 상벌규정 제11조①항

무기한 자격정지는 3년, 제명은 5년이 경과한 후 소속 조직의 논의와 요청을 거쳐 복권을 할 수 있다.

보고 2 : 깻잎 농약 검출사고 회원 징계 검토 보고의 건

- 제주도연합회 소속 강00(김00) 회원이 생산·공급 중이던 깻잎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관행 및 친환경 농기구의 관리 부실에 의한 농약 검출로, 8월 회장단(상벌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제주도연합회의 징계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무처가 최종 징계내용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회장단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를 확정하기로 함.

제주도연합회 징계 논의 내용 : 회원 자격정지 1년, 2년간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통한 출하, 공동체 경고

- 주요 의견으로는
 - 한살림 생산자로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관행과 친환경 농사를 병행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보고 3 : 유정란 생산지 점검 보고 관련 대책 건

- 2019년에 결정한 개선사항에 대해 사업연합에서 유정란 생산지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이행되지 않거나 위반하는 사례가 확인됨. 이에 8월 회장단회의에서 논의 결과 해당 기준의 시행 과정에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9월 초에 유정란 작목모임을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고함.
- 주요 의견으로는
 - 계사의 칸당 면적에 관한 기준은 2020년 말까지 무칸 계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최종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적정 입추수 초과와 경우 2019년 개선사항이 마련되기 전에 입추를 한 곳은 2020년 말까지 이행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어, 현재의 시점에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마련한 기준을 위반한 사항인 만큼 약정과 출하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유정란 작목모임에서 2019년에 합의한 기준을 2020년부터 이행하기로 한 부분을 전제로 미이행 사유를 확인하고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 안건 논의 사항

승인 제1호 안건 회원 및 신규공동체 가입 승인의 건

제안 내용 아래 25세대 회원과 부여연합회 상록공동체의 가입승인을 요청함

[경남연합회] 진산공동체 구만옥, 김성재, 정장혜, 공이근, 구현서, 김수민, 박덕진, 최운식 공릉나라공동체 김기태

[부여연합회] 상록공동체(예비) 이동명(송윤희), 손병륜(장혜경), 이장호(이정희), 이장식(도순옥), 신두철(권태옥), 박해욱(이정자), 김상중(이선우), 강영식(신미하), 송주영(최낙순), 이복석(윤다혜), 임재천, 양이석(박영자), 공영수(이명숙), 이혁재(김연진)

[청주연합회] 뿌리공동체 박상정

[충남북부권역] 매산리공동체 정영석(이인숙) 예산자연농회 김기윤

결정 내용 경남연합회 김성재 생산자의 경우 12,000평 생산 규모나 방식이 한살림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회의에서 가입을 검토하기로 하며, 그 외 25세대의 회원과 상록공동체의 가입을 승인함.

※ 상록공동체는 논산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활동을 하는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공동체이며, 주요 생산 품목은 감자, 양파, 양송이, 표고버섯, 딸기, 수박 등이며, 14농가로 구성되어 있음. 2019년 4월부터 부여연합회와 함께 월례회의를 진행하며 예비공동체 활동을 함.

토론 제1호 안건 한살림 퇴비·축분 사용기준 변경(안) 검토의 건

제안 내용 한살림 퇴비 사용기준이 친환경인증의 허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인증기준 허용범에서 재정비하자는 제안이며, 변경(안)은 아래와 같음.

변경(안)

- 허용 자재**
 - 유기·무항생제 축산농장으로부터 유래한 축분 허용
 - 경종과 축산이 결합된(순환이 전제된) 개별생산자(생산자 본인) 축산으로부터 유래한 축분 허용.
 - 지역순환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는 한살림 공동체 간 또는 지역(시, 군) 근거리에 위치한 개별 축산농가의 축분은 충분히 발효 후 사용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된 유기자재는 사용 가능.
- 사용조건**
 - 친환경인증 축산농가 및 본인의 축분이 아닌 경우에는 중금속, 항생제 검사 필수, 일반 계분의 경우 잔류농약검사 추가
 - 출처가 불분명한 축분을 수집하여 제조 판매되는 퇴비는 사용금지.
 - 부숙 된 퇴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숙도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부숙이 덜된 퇴비는 추가적인 부숙 기간을 갖고 완숙 후 사용.
- 비고**
 - 국가인증 취득한 경우 모든 사항은 인증기관의 인증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한살림 퇴비 사용기준이 친환경인증의 허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인증기준 허용범에서 재정비하자는 제안이며, 변경(안)은 아래와 같음.

한살림 퇴비 기준 변경에 대한 설명

- 19년도 한살림 생산·출하기준 공통기준에는 유기재배, 무농약, 참여인증 1단계 과수(저농약 과수)등 인증단계에 대한 구분 없이 “유기재배 퇴비(축분사용)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축분 이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음. 이에 국가인증 규정의 축분 사용 기준에 준해서 축분 이용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한살림 공급(약정)하는 물품의 생산을 하기 위한 퇴비 기준은 위 기준으로 통일함
- 지역순환농업의 범위 확장 및 친환경농업 인증법 준용: 이는 과거 지역순환의 우분 및 무항생제 인증 축분만 발효하여 퇴비를 활용했지만, 변경된 퇴비 기준은 친환경농업 인증을 준용하여 검사(항생제, 중금속 검사)를 추가하였고, 지역의 축분(우분, 돈분, 계분)을 널리 활용하기 위함(인증법에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축분”은 항생제, 중금속 검사를 통해 불검출이 되면 사용 가능함). 한살림 산란계는 무항생제 및 동물복지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은 관계로 사용하려면 항생제, 중금속 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결정 내용 원안을 생산자연협회 의견으로 제출하기로 함.

토론 제2호 안건 생산지 폭우 피해 대응 방안의 건

제안 내용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한 생산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생산자연협회 차원에서 피해 농가 지원 및 향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모색이 필요한바, 의견 개진을 요청함.

결정 내용 사무처와 지역사무국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로 하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회장단과 소통하여 우선 지원하고 9월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주요 의견 피해 유형(주택, 농지, 농기구, 농산물, 약정 필지 및 미약정 필지 등)을 구분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한살림의 지원제도(생산안정기금, 위로금 제도) 국가재난지원 제도, 한살림 전체 차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역에서 식재료까지 유실된 농가가 있어, 한살림 물품을 활용한 식재료 등의 생계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긴급한 사항은 생산자연협회에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피해상황이 파악이 되면 생산안정기금과 가격안정기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차원에서 모금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 주택침수 등의 시급한 상황은 생산안정기금과는 별개로 위로금 제도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수산 분과 소개

지속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품을 생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산 분과 생산자들입니다. 엄격한 한살림 기준에 맞추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각종 폐수와 폐기물을 규정에 맞게 처리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이지만, 세대를 넘어 우리 후손에게도 맛있고 다양한 어종을 공급하기 위해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산 분과에 속한 16개 산지는 어류(생물, 냉동, 손질), 건어물류, 각종 해산물 등 다양한 수산물을 한살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근해에서 잡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근해산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일부 물품만이 원양산으로 공급됩니다.

수산 분과에 소속된 생산자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한살림 운동을 실천하면서, 연간 4회 정도 정기적인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비자 조합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안전한 수산품을 공급하고, 해양자원을 잘 보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지 특성상 해안선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살림 운동을 실천하고 점검하기 위한 분과회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는 통영에서 부산·경남한살림 가공품위원회 위원분들을 만나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기 쉽지 않지만 언제든지 한살림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제안하신 내용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야심차게 생산지 간의 협업을 통한 믹스된 형태의 물품 출시와 반려동물 식품이나 밀키트 등의 출시도 고려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산분과 생산자들은 논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민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수산 분과 생산자는 이웃과 소비자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지명	지역	주요물품
마하담	전남 신안군	소금류
섬진강신비재첩	경남 하동군	재첩국
신흥수산	전남 해남군	김류
에코푸드코리아	충남 태안군	생물, 냉동, 손질수산물, 수산가공품
완도수산	전남 완도군	미역, 다시마류
우리바다살림	경기 광주시	생물 수산물류
자연의선물	전남 장흥군	쇠미역, 다시마, 미역귀
아침바다	강원 강릉시	젓갈, 오징어채, 황태류
원원농수산	경기 양평군	다진 생선살, 손질 해물류 등
죽방림	경남 사천시	해물맛 국물팩, 생미역 등
중앙씨푸드	경남 거제시	남해안 생굴, 멧게
초록섬마하담	전남 신안군	젓갈류
추자씨푸드	경기 안산시	삶은 문어, 꼬막 새우살 등
한수풀수산	제주 제주시	냉동생선, 손질 생선 등
해농수산	성남 중원구	제주자반, 갈치, 옥돔 등
해성씨푸드	경남 통영시	멸치류, 디포리, 보리새우





박중규/청년위원회 2030 분과 운영위원

농업의 가치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 동아리 '벃밭'이 거창으로 한살림 농활을 오다



대학생 동아리 '벃밭' 학생 9명은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동안 거창 지역에서 농촌봉사활동(이하 '농활')을 진행하였다.

지난 6월 첫째 주 여름의 시작 즈음 2030 분과장이자 친한 형인 청주의 나기창 생산자의 부탁으로 농활 사전회의에 참여하였다. 나기창 생산자를 통해 농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고, 작년 한살림재단의 후원을 받아 파머스마켓도 진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 그들의 첫인상은 서울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 같았지만, 회의가 시작되고 함께 이야기하며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은 평범한 대학생들이 흔히 관심을 갖지 않는 먹거리 문화나, 농업, 농촌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들 중 몇 명은 채식주의자라고 하였다. 동아리의 이름은 '벃밭'이며, 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벃이 되고, 밭이 되는 일에 대하여]라고 하였다. '벃밭'은 2019년 결성 당시 4명이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2020년)는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속 대학교는 5명 중 4명은 서강대학교 학생이고, 1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이다. 작년에는 학교 축제 때 한살림재단의 후원을 받아 파머스마켓을 진행하였고, 이후로는 농가 방문 및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공유주방을 대여하여 같이 음식을 만들어먹기, 대학생으로서 [먹고살고자 하는 이야기 나누기] 등의 동아리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첫 회의를 마치고 2030 분과 위원들과 농활 후보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4박 5일 정도 진행하니, 숙소가 있는 곳, 같이 어울릴 청년들이 있는 공동체를 고려해서 거창, 괴산, 부안 정도가 후보지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거창으로 정하였다. 거창 산하늘공동체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경남청년위에서 같이 교류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는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청년생산자님들에게 "농업,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 있어하는 기특한 대학생들이 경남에 옵니다. 물품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남의 생산자들과, 마산 지역 한살림 조합원 모임에서, 토마토즙, 고추부각, 재첩국, 밀크티, 감자, 감말랭이, 계란 등 많은 물품을 지원해주셨다. 또 나기창 생산자는 8월 14일 '벃밭' 친구들이 거창에 온 첫날, 청주에서 많은 물품을 싣고 와서 함께 하였다.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KTX를 타고 김천구미에 도착한 '벃밭' 친구들을 어머니와 함께 마중 나왔다. 첫날은 학생들과 읍내 시장을 구경하고, 장을 본 뒤, 저녁으로 떡볶이와 김말이를 만들어 대접하였다. 둘째 날은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3시부터 7시 정도까지 오전과 오후 모두 일손 돕기를 하였다. 저녁에는 산하늘공동체와 이야기 마당을 진행하며 귀농한 생산자, 후계농 등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셋째 날은 오전에만 일손 돕기를 하고, 오후에는 경남청년생산자와 교류회를 진행했다. 하동, 합천, 거창의 생산자들과 휴일임에도 달려와 준 구영기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실무자가 함께하였다. 농업과 귀농, 농업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질문과 대화가 오고 갔다. 우리 생산자들은 '벃밭' 친구들이 도시의 삶에 집중하면서도, 농촌과 농업,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들으며 감동하고, 공감했다. 저녁에 이어진 뒤풀이는 '벃밭' 친구들이 준비한 음식과, 거창의 정쌍은 포도주를 마시며 밤 12시까지 이어졌다.

넷째 날 일손 돕기는 진행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사과밭에 일손 돕기도 좋지만 이왕 온 김에 사과를 직접 수확도 해보자"라는 제안에 아오리 사과가 조금 있는 밭으로 학생들을 데려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사과를 따라고 하였다. 더운 여름 일손을 도우며 고생하고 먹는 사과는 맛있었을 것이다. 9명 모두 4박 5일 동안 더운 날씨에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일손을 돕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그러면서도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 자신보단 생산자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에 감동하였다.

'벃밭' 친구들이 돌아간 후 9명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다. '곧 개강하여, 코로나에, 일상에 지칠 때면 언제든지 거창에 내려와요. 집 비밀번호 바꾸지 않을게요. 고마운 마음에 사과즙 선물 보내요.'

우리 한살림 생산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들과 한살림 농활을 유치하면 좋겠다. 학생들과 농업의 소중함과 먹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농사도 체험하게 함으로써, 농촌 살기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한여름의 호시절 한살림 농활을 마치며

- 대학생 동아리 '벃밭' -

며칠 째 그치지 않던 장마가 지나고, 매미가 우는 맑은 하늘이 돋보였던 8월 14일, 우리는 농가 방문을 위해 거창에 도착했습니다. 추워서 외투를 싸맨 2월 어느 날 한살림 사옥에서 나누기 시작한 농가 방문이 드디어 목전에 다가왔음을 그때야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총 4박 5일간의 일정은 머릿속이 복잡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난 채 단순한 시간적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대기가 뜨거워지기 전에 일어나 채비를 하고 사과 잎을 닦으며, 또 배가 고프면 끼니를 만들어 먹었고, 그러다 피곤하면 잠에 들었습니다. 한 알의 사과가 내 앞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의 사전답사에서 보았던 야구공만 한 열매는 한 달 만에 불그스름한 색을 띠며 생장해있었습니다. 아직은 푸른 홍로가 폭 익기 위해 열매를 가리고 있던 잎들을 닦습니다. 툭- 툭- 나있는 방향을 거슬러 잎을 움직이면 수분감이 감도는 소리와 함께 익은 가지와 분리되었습니다. 한 그루에 매달린 지 10분 남짓 되었을까요. 제 키에서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의 잎을 따낸 이후 다섯 발자국 멀리 떨어지면, 숨겨져 있던 사과들이 흰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정 중 이틀간은 오후 시간을 내어 닿지 못했던 작물에 대한 이야기와 농촌의 이야기가 담긴 대화마당을 준비했는데요. 뜻밖에 인연으로 한자리에 모여주신 생산자님들은 재배하는 작물도 약간씩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도 약간은 달랐지만, 현재와 순간을 오롯이 느끼며, 작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5일의 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고, '벃밭' 친구들은 다시 살아왔던 도시로 회귀했습니다.

두세 걸음 떨어져 바라본 농촌은 나의 삶과 거리가 있다고 느껴졌지만, 용기 내어 내디딘 농촌에는 나의 삶과 다르지 않고, 도리어 생동하는 작물과 사람과 자연이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편안했고, 즐거웠던 것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반겨주시고 챙겨주셨던 생산자님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가 방문 훨씬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임해주셨으며, 일정 내내 함께 있어주시고 챙겨주셨던 박중규 생산자님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